



실험과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낸 첨장기법

윤주철 도예가는 답을 찾기 위해 2~3년 동안 긴 고민과 탐구의 시간을 가졌다. 도예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도자기에 어떤 미래와 생각을 담을 것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의 도자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첨장기법을 개발했다. “첨장기법은 화장토를 붓으로 바르는 귀얄기법을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자기에 돌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면서 도자기에 입체감과 조형미를 주는 거죠. 도자기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티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첨장기법의 과정

은 먼저 석고와 물레를 이용해 기물을 제작한 뒤, 반 건조된 기물에 붓으로 흙물을 20회 정도 바르고 비닐로 밀봉한 후 12시간 정도 보관한다. 반건조된 기물은 마르면서 수분을 흡수해 기면에 흙 입자들이 달라 붙는다. 도자 위에 흙물을 바르면 수분이 맺히고, 흙물의 농도에 따라 작거나 큰 돌기가 생긴다. 돌기 부분에 일정한 방향으로 흙물을 바르거나 원하는 색상의 안료를 발라 1차 소성(900도)과 2차 소성(1,250도)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돌기가 생긴 도자기는 산호초처럼 수십 개의 돌기를 형성해 입체감과 조형미가 돋보인다. 무수한 돌기를 보고 있으면 정교하고 치밀한 질서 속에 리듬감과 역동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문화와 정체성이 담긴 도자기

윤주철 도예가는 자신의 고민과 실험 정신이 담긴 첨장기법의 도자기를 2005년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첨장기법의 작품을 선보였고 2022년에는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첨장기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대상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첨장기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제가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얻은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현재 윤주철 도예가의 작품은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3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현대 한국 도자기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윤주철 도예가는 과거에는 중국, 현대 도자기는 일본이 앞섰지만, 앞으로는 한국

도자기가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의 백자, 고려의 상감청자처럼 2000년대 대한민국 도자기의 대표 수식어가 첨장기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예의 본질은 시대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자, 청자도 자기 수련과 기술을 터득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예술의 꽃을 피운 것처럼 첨장기법 역시 오늘을 대표하는 미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윤주철 도예가는 숙원 사업인 첨장기법 도자기 미술관 완성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미뤄두었던 해외 전시도 활발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윤주철 도예가가 걸어갈 도예의 길에 예쁜 꽃이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1. CHEOMJANG 140505 41×20×20 첨장기법 / 백색자기도, 안료
2. CHEOMJANG 151130 120×25×25 첨장기법 / 백색자기도, 안료

고양시 공예명장이란?
고양특례시는 공예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공예인을 선정해 고양시 공예명장 칭호를 부여한다. 분야는 목·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이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6개 분야를 통틀어 1명을 선정한다. 15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공예명장 칭호 부여 및 증서 수여, 정려금 1천만 원이 지급된다.

